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순찰 봉사 중 '미야발견' 엄마 품으로

지난 23일 저녁, 서산 호수공원 일원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지회장 가금현, 이하 지회)는 지난 23일 서산시 호수공원 일원 청소년 보호 순찰 봉사 중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미아를 발견 엄마 품에 안기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10분경 지회 회원들은 호수공원 일원 순찰 중 한 주민이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달려가 미아를 발견 안정시키고 부모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엄마를 잃고 울고 있던 아이는 호수 공원 중간에 놓인 다리 입구에서 엄마와 함께하며 노는 사이 엄마가 보

이지 않자 놀이터 방향으로 엄마 찾아 키보드를 끌고 혼자 울며 이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회 이미경 회원은 아이를 안고 달래며, 아이가 메고 있던 가방 안을 살펴 은근 H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 안전하게 엄마 품에 암기도록 했다.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는 서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단체로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야간순찰, 학교폭력예방, 솔·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신분증 확인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백순신 기자



광주 수창초,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수창초등학교(교장 배창호)가 지난 8일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2일 수창초에 따르면 지난 1921년 10월 3일 서방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고, 개교 100년 동안 총 4만 1,85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수창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외부인 초청 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행사는 100주년 특별 기획, 축

하 공연, 기념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수창초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친일 전제 청산 사업의 일환으로 교과·교목·교화를 교체했고, 100년의 역사사를 디지털 자료로 담은 '디지털 역사관'을 구축한 바 있다.

기념행사에서 새로 만든 교과를 제작했고, 새로 지정된 교목(느티나무) 및 교화(절쭉)를 홍보했으며, 전·현직 교직원, 졸업생 등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을 방영했다.

수창초 교육공동체는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학교의 역사적인 기록과 발자취를 살펴봤고, 새로운 100

년을 이끌고 세계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

배창호 교장은 "광주수창초는 100년 동안 지역 인재의 요람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뜻깊게 치러준 교직원들께 감사하다"며 "100년의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하게 학교를 지켜온 동문한 분 한 분이 함께한 기록과 발자취라고 생각하고, 100년을 넘어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이어갈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양준 기자

서부평생교육원, 문해교육 환경 시화전 시상

2021년 환경 중점사업 일환으로 '문해 환경 시화전' 운영



서부평생교육원(원장 김나겸)은 지난 8일 2021년 환경 중점사업 행사의 하나로 실시한 문해교육 환경 시화전 수상자 3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시화전은 서부평생교육원에서 처음으로 주관한 대회로, 특히 학습자 어르신들 대부분이 참가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 9월 한 달간 문해교육 학습지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통해 시화를 제작했고, 우수작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8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금현 기자

세종시 연세초, 학교폭력 예방 학생들이 나선다

학생 자율동아리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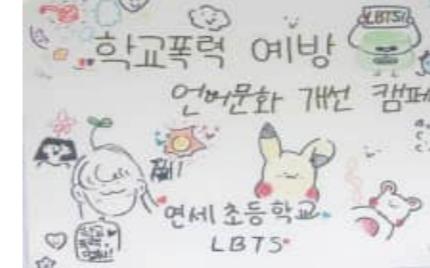
연세초등학교(교장 강해정, 이하 연세초)는 올해 5월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자율 동아리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을 구성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연세초는 올해 세종지역을 대표하는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됐다.

6학년 학생 중심의 동아리로 구성된 연세초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은 학생자치회와 연계해 학생 주도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 ▲월간 어울림 소식지 발간 ▲최근 학교폭력 사례 모의 역할극 실시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및 마스코트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굿즈 제작 등 연말까지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특히,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공동체 의식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2021 학교폭력 예방 및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어울림 학생서포터즈 단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교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손팻말을 활용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쳤다.

강해정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연세초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태안 동네

펴보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당진시내 청소년 우범지대 해소를 위한 실천적 협업 방안 ▲불법 태시 영업 콜거리에 대한 청소년 안전망 확보 방안 ▲유관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아동학대 사례 공유 방안 ▲

교육 안전망 확보를 위해 당진교육이 고민해야 할 의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김용재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아동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학생 발견시 신속한 보호조치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태안교육지원청, '행복동행' 마을교사 위촉

마을이 함께 모두의 아이를 키워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은 지난 18일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 공동생활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복동행' 사업 운영을 위한 마을교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복동행' 사업은 태안군문화예술총연합회, 천리포 수목원, 마을교육평생학습연구회 등 지역 주민 및 기관과 연계해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 공동생활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 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선완 교육장은 "미래교육은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으로 마을의 연합과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교육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민·관·학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필 기자

경기도교육청, 1인당 5만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금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 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 당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 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

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통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 비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도 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이다.

/김지우 기자

진천 초평초, 충북학교문화예술페스티벌 참여

초평초등학교(교장 최연호) 라온제나 오케스트라는 지난 20일 충청북도 학생교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1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번 충북학교문화예술페스티벌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 학생들의 성취감 향상 및 예술을 통한 총체적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초평초 오케스트라(라온제나) 연주곡은 라데오카 행진곡/요한슈트라우스 1세, Go west(고 웨스트)/엘더번스타인을 연주했다.

특히 이번 충북학교문화예술페스티벌 특별부 경쟁 부문(오케스트라)은상을 수상했으며,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 매년 참가하고 있다.

있도록 했다.

초평초 라온제나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2012년에 창단했으며, 2013년 10월 창단 연주회 이후 현재까지 '충북문화 축하 공연, 어버이날 축하 공연, 전천 효병원'과 '진천원광 은혜의 집',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 행사, 학부모연수 행사, 경로당, 노인 요양원 위문 공연, 꽃동네학교 봉사 공연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주제의 공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제44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특별부 경쟁 부문(오케스트라)은상을 수상했으며, 충북학교문화예술교육페스티벌 매년 참가하고 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추인)은 지난 16일 '2021학년도 2학기 예산군 학생회연합 출범식과 배움자리(워크숍)'를 예산교육지원청 1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예산군 학생회연합은 예산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생자치회 대표들로 구성·운영되며, 2학기 새로이 구성된 학생회연합 활동을 시작하고자 이날 출범식과 배움자리(워크숍)를 실시했다.

배움자리에서는 각 학교별 학생자치회 대표들이 학생자치회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PPT로 발표하고,

민주적 학생자치회 운영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예산군 학생회연합을 이끌어갈 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했고, 2학기 학생회연합이 시행할 사업을 발굴하고 공유했다. 또한 모둠별로 학생회연합의 역할과 위드코로나시대에 학생회의

/최용관 기자